

배우자 선택 메카니즘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Mate Selection Mechanism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교수: 金 惠 善

Dept. of Home Economics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Prof. : Hye Seon, Kim

성신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강사: 韓 嬉 善

Dept. of Home Economics

Sung Shin Women's University

Lecturer : Hye Sun, Han

본 연구는 배우자선택과정에서의 만남의 유형, 만남의 유형에 따른 교제량(기간, 횟수), 배우자선택진행과정(처음 만날 때, 결혼을 의식하면서 만날 때, 결혼을 결정할 때의 여과망)을 밝힘으로써 배우자 선택의 메카니즘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368명의 결혼 1년 이상 5년 미만의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만남의 유형은 의도적인 것과 우연한 만남이 비슷한 수준이었고, 23-26세에 처음 교제를 시작하여 평균 한 달에 10회 2년 이하의 교제기간을 거치며 6-12개월에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결혼을 결정하며 결혼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제진행과정에 있어서 각각의 단계를 지속시키는 여과망을 살펴본 결과, 첫 만남의 시기에는 근접성 여과망이나 매력 여과망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결혼의식과 결정단계에서는 의견일치나 상호보완 등의 내면적인 기준이 중요한 여과망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이 Udry의 이론과 같이 6단계로 나뉘어 여과되지 않고 동시적·압축적으로 여과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 문제의 제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장하여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배우자를 맞이함으로써 자신이 출생한 가족(方位家族)을 떠나 자신의 가족(生殖家族)을 이루게 되는데, 이러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결혼이며, 각 개인은 결혼으로 새로운 역할과 권리 및 의무를 부여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다음 세대를 재생산하고 사회구성원을 사회화시킨다. 그러므로 결혼은 개인

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결혼의 일차적인 목적이 가계계승에 있었던 전통사회와 달리 당사자 사이의 애정과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는 배우자선택이 본인들의 권리와 의무가 되었다. 따라서 배우자선택을 위한 과정으로서의 이성교제는 누구나 거치게 되는 당연한 하나의 과정이며, 이에 대한 관심 또한 증대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배우자선택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며, 이는 배우자선택의 과정이 인간의 감정과 같은 복잡하고 미묘한 내면적인 측면과 맞물

*본 논문은 1993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술재단의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리며 또한 각 개인마다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배우자선택에 대한 연구는 연구의 성격상 이론화가 어렵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연구 그 자체를 간과할 수는 없는 일이다.

배우자선택의 연구는 배우자선택의 조건, 즉 배우자는 어떠한 범위로부터, 어떠한 기준에 의해, 누가 선택하는가 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경우와 배우자선택의 메카니즘 즉, 배우자선택은 언제 어떻게 해서 시작되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발전해가는가 하는 데 그 초점을 두는 경우가 있다.

이제까지의 배우자선택연구는 주로 결혼의 필요성과 동기, 목적 등을 살펴본 결혼에 대한 태도 연구(조규현, 1980; 유시중, 1984; 홍준숙, 1987; 윤달원, 1987), 이성교제 시작연령, 동기, 이성교제의 잇점과 문제점, 그리고 혼전 성경험과 순결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연구(유영주, 1976; 김철자, 1977; 유시중, 1977, 1984; 김경숙, 1985, 김미숙, 1987, 김혜선, 1988), 배우자선택의 기준과 방법에 대한 연구(한남제, 1973; 최충일, 1976; 손승녕, 1978; 이동원, 1981; 유시중, 1984; 정민자, 1987; 김혜선 · 신양재, 1988)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유사한 결과를 밝혀내고 있다. 그러나 한 쌍의 남녀가 어떤 계기로 알게 되었으며 교제를 통해 어떤 식으로 관계를 발전시키고 결혼에 이르는가 하는 메카니즘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 개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떠한 기준으로 어떤 이유에서 결혼하느냐 하는 것은 한마디로 설명하기에는 무척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나 배우자선택의 결정요인이 시대나 사회적 배경에 따라 다르므로 현대 우리사회의 배우자선택과정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고, 더 나아가 지금까지 발표된 배우자선택에 대한 이론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 배우자선택의 고유한 메카니즘을 찾아보는 일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배우자선택은 일시점에 있어서의 1회에 한하는 행동이 아니고 한 쌍의 남녀가 서로 알게 되면서부터 결혼에 이르기까지 여러 적격자 중에서 특정의 한 사람에게 한정되어져 가는 여과(filter)적인 성격

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으로서의 배우자선택은 그 진행에 따라서 보다 친밀한 깊은 관계로 발전하고, 친밀감의 강화에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책임의 증대, 상호이해의 심화, 의견일치의 증대의 방향으로 진전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선택의 메카니즘에 초점을 두고, 배우자선택에 있어서의 각 단계를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Udry의 여과망 이론을 기본으로 하여 배우자선택과정의 각 단계에서 어떤 것들이 filtering의 요인인지를 밝힘으로써 현대 우리사회에서의 배우자선택 메카니즘이 어떠한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배우자선택 메카니즘을 파악함으로써, 건전한 이성교제와 결혼 문화를 양성하는 데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더불어 이혼율¹⁾이 해마다 증가하는 이 시점에서, 배우자선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Udry의 배우자선택이론

배우자선택을 한 쌍의 만남으로부터 결혼에 이르는 남녀교제의 과정으로서 보는 것은 개인의 Life Cycle에 있어서의 이성과의 교제관계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배우자선택이론은 많은 심리학자와 사회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구성하였으며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여러 연구들(Winch, 1958; Coombs, 1961; Kerkchoff와 Davis, 1962; Murstein, 1970; Udry, 1971; Lewis, 1973)에 의해 이 이론들이 지지되었다.

최초로 배우자선택의 여러 요인을 발달적 모형으로 전개한 학자는 Kerkchoff와 Davis(1962)이다. 이들은

1) 1990년 서울 통계연보에 의하면 1971년부터 1980년까지 10년간 0.48%이던 조이혼율이 1981년부터 1990년 10년간은 0.94%로 약 2배 증가하였으며, 1990년 조이혼율은 1.13%로 일본(1.26), 대만(1.26)에 육박하고 있다(이혼과 가족문제, pp33-34, 한국가족연구회편, 하우 도서출판, 1993).

배우자선택이 단순히 사회적 배경과 욕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여과망마다 사회적 배경이나 집단성원의식, 가치관과 흥미, 보완적 욕구등이 관계 진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Udry(1971)는 이러한 견해를 좀 더 확대시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즉, 배우자선택과정은 모든 가능한 데이트 상대로부터 관계를 맺기 시작하여 결혼에 이르기까지 여섯 개의 여과망(filter)을 거치면서 점차 그 대상이 좁혀지고 제한되어 마지막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 데에서 끝나게 된다고 보았다. 이 여과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번째로 근접성의 여과망을 통하여 모든 가능한 대상자 가운데 현실적, 지리적으로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로 그 대상이 제한된다.

자신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상호매력을 느끼며 호감을 갖는 사람들로 그 대상은 다시 좁혀지는데, 이것이 두번째 매력의 여과망이다. 이 때 매력을 느끼게 하는 요인은 개인마다 다르겠으나 상대방의 행동을 관찰한 결과에 의한 인성, 외모, 능력 등이라 하겠다.

이들은 다시 세번째 사회적 배경의 여과망을 통하여 인종, 연령, 종교, 사회계층, 직업, 교육수준 등이 비슷한 커플들로 더욱 범위가 축소되며, 여기에서 동질혼의 원칙이 적용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근접하다 보면 서로가 비슷한 사회적 배경을 가지는 경향이 크며 두 사람의 관계는 보다 깊어진다.

이렇듯 유사한 배경을 가진 대상으로 배우자선택의 범위가 축소된 다음 상호의견일치라는 네번째 여과망을 통하여 인생관, 결혼관 등 중요문제에 대해 같은 가치관, 견해, 태도를 지닌 커플만 남게 된다. 다시 말하면 두 사람이 같은 가치관, 이상, 목표의 지향, 혹은 당사자끼리 서로 가치관이나 생활에서의 가치관 지향이 유사하며 그것을 지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는 상호보완의 여과망으로 상호 간의 욕구와 필요를 서로 충족시켜 줄 수 있고 어느 한 편의 단점을 다른 편에서 보완해 줄 수 있을 때 결혼할 가능성은 증가된다. 즉 이 단계에서는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는지를 예측하고, 상대의 입장이 되어서 감정이입을 하는것이 보다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러한 상호보완성은 윈치(Winch, 1974)의 상호보완적 욕구 이론에 의해서도 증명되었다.

그리고 결혼준비상태라는 여과망을 통과함으로써 결혼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중요한 마지막 단계로 보았다. 즉 결혼은 연애와는 달리 결혼에 대한 준비가 적절히 이루어진 상태에서만 가능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써 어느정도의 기간, 다른사람과 비교하여 그 또는 그녀는 내가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사람이라는 결론에 이르거나, 이 사람은 나에게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의식적, 무의식적인 감정이 나타난다. 또한 두 사람이 결혼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계를 계속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 배우자선택과정 관련변인고찰

배우자선택과정 관련변인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크게 배우자선택의 유형, 교제량변인, 교제과정변인 등을 고찰하도록 한다.

1) 배우자선택의 유형

배우자선택의 유형은 연애혼(자유형)과 중매혼(중매형), 그리고 절충형으로 지금까지 분류되어왔다. 먼저 연애혼은 결혼상대자를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하며 부모의 간섭이나 승인을 요하지 않는 혼인형식으로 극히 소수의 사회에서 허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젊은 남녀가 배우자를 선정할때의 기준은 가문이나 부모보다는 배우자의 경제적 생활능력이나 개인적 성품으로 되었고, 새로운 가정을 꾸밀 때에는 가문의 명예보다는 새로 꾸민 가정의 행복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또한, 두 사람 사이의 취미와 성품이 잘 융합할 수 있는지, 서로 사랑하며 만족할 수 있는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다음 중매혼은 배우자선택의 권리가 당사자에게 있지 않고 부모에게 있으며, 당사자의 의견이나 요구는 무시되고 가문이나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요시하며, 정혼과정에서 중매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혼인형식이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배우자선택은 이와 같은 중매혼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절충형의 배우자선택은 자유형과 중매형의 중간 형태로서, 당사자가 자유로운 이성교제를 통해 배우자를 선택한 후 부모에게 동의를 구하는 경우와, 중매를 통해 부모가 배우자를 선택하여 자녀에게 교제를 권하는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8년의 경제기획원 인구동태 조사에 의하면 중매결혼의 비율이 76.9%를 차지하였으나, 점차 결혼당사자의 의견을 우선으로 하는 결혼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정민자(1986)의 연구에서는 자유선택이 40.7%, 중매교제가 33.5%, 중매가 25.8%로 나타났고, 김혜선(1986)의 연구결과에서도 자유선택이 68.7%, 중매가 24.3%로 제시되고 있다.

2) 교제량변인

(1) 교제빈도

교제빈도는 배우자선택과정 중의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써, Burgess와 Cottrell은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서는 결혼 전에 3년 이상을 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으며, 김혜선(1992)은 한달을 기준으로 볼 때 평균 10회 정도 만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上子武次, 原田降司, 門野稔子, 田中正子, 佐藤繁美(1991)의 연구에 의하면 1주에 평균 2~3회의 데이트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제과정중의 빈번한 만남을 통해 충분히 상호작용 함으로써 '서로'를 알며, '결혼생활'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며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판단하는 것이 배우자선택과정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교제기간

교제기간은 서로의 관계를 평가하며 적합성을 검증하는 시기(Melville, 1983 : 101 ; 望月嵩, 1972 : 50)를 일컫는 것으로서 Goode(1964)는 결혼전의 교제기간과 약혼기간을 적용이 이루어 지는 공통의 경험을 갖는 기간으로 보았으며, 따라서 결혼전 단기간의 교제는 가족해체의 잠재적 요인이 되며 결혼전에 2년 정도의 교제기간은 안정된 결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望月嵩(1977)는 교제기간 동안 상대방과 자신의 인성을 파악하고 상호 적합성을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한편 高橋惇子(1985)는 결혼 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교제기간이 남자의 경우 6개월 이내가 28.8%, 1년이내가 35.6%, 여자의 경우 6개월 이내가 적당하다고 대답한 경우가 26.8%, 1년이내가 적당하다고 생각한 경우가 39.3%라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서는 적어도 1년의 교제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또

上子武次와 그의 동료들(1991)은 연령이 많아질수록 교제기간이 짧아진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연령이 많을 경우 결혼의 결정이 상대적으로 급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혜선(1992)의 연구에서 나타난 교제기간은 만 1년이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2년 4개월 정도 교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혼 전에 일정한 교제기간을 가지는 것이 이후 배우자선택의 결정에 중요한 전제조건이 되며, 행복한 결혼생활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3) 교제진행과정변인

(1) 첫만남시기

기혼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배우자와 언제 처음 만났는지에 대해 조사한 연구는 없다. 단지 데이트라는 이성교제행위를 보편적으로 언제쯤 시작하는지에 관한 연구에서 上子武次와 그의 동료들(1991)은 주로 16~18세 사이에 데이트를 처음 시작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2) 결혼을 의식한 시기

上子武次와 그의 동료들(1991)은 각각 대도시와 소도시에서 결혼형태에 따라 교제시작 후 언제쯤 결혼을 의식하는지에 관한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대도시의 경우 중매혼일 때에는 만난 지 3.2개월 후, 연애혼일 때에는 12.1개월 후에 결혼을 의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도시의 경우 중매혼일 때에는 2.5개월, 연애혼일 경우 13.9개월 후에 결혼을 의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혼인형태에 따라 결혼을 의식하는 시기가 상이함을 알 수 있다.

(3) 결혼을 결정한 시기

결혼을 결정한 시기에 관한 연구도 거의 없는 실정이며, 일본에서 대도시의 경우 중매혼일 때에는 만난 지 3.4개월 후, 연애혼일 때에는 만난 지 15.0개월 후에 결혼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도시에 있어서는 중매혼일 때에는 만난 지 2.7개월 후, 연애혼일 때에는 16.4개월 후 결혼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매혼에 비해 연애혼의 경우 결혼을 결정하기까지의 기간이 더 긴 것을 알 수 있다(上子武次의 4인, 1991).

III. 연구문제 및 용어정의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교제의 일반적인 경향과 교제과정의 각 단계에 따라 어떤 여과망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 배우자선택 메카니즘의 일반적인 경향(만남의 유형, 교제량, 교제진행과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 교제량과 교제진행과정은 만남의 유형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 교제진행과정은 어떤 여과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2. 용어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배우자선택 메카니즘

메카니즘은 본래 어떤 사고나 행동 따위를 결정하는 심리적인 과정을 뜻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의에 근거하여 배우자를 선택하기까지의 교제진행과정, 그리고 그 진행과정에 불가분의 관계로 포함되는 만남의 유형, 교제빈도, 교제기간 등을 모두 포괄하여 배우자선택 메카니즘이라고 정의한다.

2) 만남의 유형

본 연구에서는 만남의 유형을 의도적 만남과 우연한 만남의 2가지로 구분하였다. 선행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배우자선택의 유형에는 크게 중매혼, 연애혼, 절충혼의 3가지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완전한 의미에서의 중매혼과 연애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중매혼의 경우 자녀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가문에서 정혼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더불어 연애혼의 경우도 부모의 간섭이나 승인을 받는 것이 보편적인 우리사회의 실태이므로 엄격히 말하자면 절충혼이 대부분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친구나 선배의 소개, 선을 통한 경우, 직업적인 중매인이나 결혼상담소를 통해서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을 의도적인 만남이라고 정의한다. 반면, 우연한 만남은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고 직장이나 학교, 여가·취미활동, 기타 등을 통해서 처음 만나서 이후에 결혼에 이르게 된 경우를 우연한 만남으로 정의한다.

3) 여과망

본 연구에서의 여과망은 Udry의 이론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6개로 정의한다.

(1) 근접성 여과망 : 고향이 같을 경우, 사는 곳이 가까울 경우, 같은 직장에 근무할 경우, 학교동문일 경우

(2) 매력 여과망 : 잘 생겼을 경우, 건강해 보일 경우, 성격이 좋을 경우, 나이가 비슷할 경우

(3) 사회적 배경 여과망 : 집안이 좋을 경우, 학벌이 좋을 경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 종교가 같을 경우, 직장이 마음에 들 경우

(4) 의견일치 여과망 : 인생관이 비슷할 경우, 결혼에 대한 생각이 비슷할 경우, 취미가 같을 경우, 서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

(5) 상호보완 여과망 : 내가 부러워 하는 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 할 수 있는 경우, 내가 하는 일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

(6) 결혼준비 여과망 : 적령기가 된 경우, 군대를 제대한 경우, 취업을 한 경우, 졸업을 한 경우, 부모들이 결혼을 중용하는 입장인 경우

IV.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선택에 있어서 진행과정을 보기 위해 결혼한 지 1년 이상부터 5년 이하까지의 서울시 거주 기혼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기혼자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은 본 연구의 목적이 상대방과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배우자를 선택하였는지의 메카니즘을 실증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또 결혼지속연수를 1년에서 5년사이로 제한한 것은 이미 결혼한 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전의 상태에 관해 질문하는 회고법에 의한 조사로서, 교제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상황에 대한 기억력을 되살리기 위하여 이 시기로 한정하였다.

질문지 작성은 Udry의 여과망 이론에 맞추어서 본 연구자가 직접 작성하였는데, 가족학 전공자들의 면담타당도를 받아 5번의 수정을 거쳤다.

본조사에 앞서 질문지 문항에 대한 타당도와 응답 정도를 알아보고자 1995년 1월 17일에서 25일까지 기혼자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조사용 질문지를 다시 재구성 하였으며, 1995년 3월 10일에서 20일까지 훈련받은 조사원들이 아파트나 주택가, 사무실, 상점 등에 찾아가서 직접 면접조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여, 총 368부가 최종분석에 사용 되었다.

이상의 표집된 자료는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카이검증 등을 실시하였다.

V.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자가 48.9%, 여자가 51.1%로 나타났으며, 종교는 기독교가 47.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무교가 25.3%, 천주교가 16.0%, 불교가 11.0%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지위는 중층이 49.9%, 상층이 32.3%, 하층이 17.9%로 나타났다.

2. 배우자선택 메카니즘의 일반적인 경향

배우자선택 메카니즘의 일반적인 경향은 다음 표 2와 같다.

만남의 유형은 의도적 만남이 50.6%, 우연적 만남이 49.4%로 친구나 선배의 소개, 선이나 중매, 결혼상담소 등을 통해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경우나, 결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348)

변 수	집 단	빈도(%)
성 별	남 자	170(48.9%)
	여 자	178(51.1%)
종 교	기 독 교	164(47.7%)
	천 주 교	55(16.0%)
	불 교	38(11.0%)
	없 음	87(25.3%)
	사 회경 제적 지 위*	상 층
	중 층	170(49.9%)
	하 층	61(17.9%)

*사회경제적 지위는 학력, 수입, 직업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임.

혼을 마음 속에 두지 않고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만난 경우가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교제량에 있어서는 먼저 교제빈도를 보면 한 달에 만나는 횟수가 6~10번이 25.4%, 16~20번이 21.4% 21번 이상이 20.2%, 0~5번이 15.9%로 나타나 조사대상자마다 다양한 교제빈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다음으로 교제기간을 보면 2년 이하가 29.4%로 가장 많고, 다음이 1년 이하로 25.5%, 4년 이상이 20.3%의 순으로 나타났다.

첫만남 시기를 보면 23~26세가 가장 많고, 18~22세는 32.9%, 27~30세는 23.9%, 31세 이상은 2.9%로 나타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23~26세에 교제를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2. 배우자선택 메카니즘의 일반적인 경향 (N=348)

변 수	집 단	빈도(%)
만남의 유형	의도적 만남	169(50.6%)
	우연한 만남	165(49.4%)
데이트 횟수 (한 달 기준)	00-05회	55(15.9%)
	06-10회	88(25.4%)
	11-15회	59(17.1%)
	16-20회	74(21.4%)
	21회 이상	70(20.2%)
데이트 기간	1년 미만	84(25.5%)
	1년 이상 2년 미만	97(29.4%)
	2년 이상 3년 미만	52(15.8%)
	3년 이상 4년 미만	30(9.1%)
	4년 이상	67(20.3%)
첫만남시기	18-22세	113(32.9%)
	23-26세	138(40.2%)
	27-30세	82(23.9%)
	31세 이상	10(2.9%)
결혼의식시기	00-01개월	47(13.5%)
	01-03개월	61(17.5%)
	03-06개월	69(19.8%)
	06-12개월	85(24.4%)
	12-24개월	53(15.2%)
	24개월 이상	33(9.5%)
결혼결정시기	00-06개월	128(36.9%)
	06-12개월	92(26.5%)
결혼결정시기	12-24개월	65(18.7%)
	24개월 이상	62(17.9%)

*무응답으로 계에 차이가 있음

표 3. 남녀의 첫만남의 시기 차이

성별/시기	18-22세	23-26세	27-30세	31세 이상
남	16.67%	40.48%	38.10%	4.76%
녀	48.57%	40.00%	10.29%	1.14%

$\chi^2 = 58.07^{***} (p < .001)$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것이 첫만남 후 몇 개월이 지나서인지를 질문한 결혼의식시기에 있어서는 6~12개월 사이가 24.4%로 가장 많았고, 4~6개월이 19.8%, 2~3개월이 17.5%로 12개월 미만이 약 73%로 주로 첫만남 후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혼을 결정한 것은 첫만남 후 몇 개월이 지난 후였는지를 물어본 결과 6개월 미만이 36.9%로 가장 많았고, 6~12개월이 26.5%로 나타났다.

한편으로 배우자선택의 메카니즘이 남녀 서로 상이한 양상을 보이는지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 것은 첫만남 시기, 교제기간, 결혼의식시기였다.

먼저 첫만남의 시기에 있어서 남자는 23~26세가 40.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이 27~30세가 38.10%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자는 18~22세가 48.57%로 가장 많았고, 23~26세는 40.00%로 나타나(표 3)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연령에서 첫만남의 시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남자의 경우 군대나 직업준비에 따라 첫만남의 시기가 늦어진 것으로 풀이될 수 있으며, 또 남편이 부인보다 연상이라는 우리사회의 보편적인 결혼형태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성별에 따른 교제기간의 차이에 있어서는, 남녀 각각 교제기간의 평균치를 내어 t-test를 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표 4). 즉, 남자는 평균 29개월, 여자는 평균 35개월로 나타나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은 교제기간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배우자선택의 기준으로 남자는 성격, 건강, 외모를 중시하는 반면 여자는 성격, 장래성, 건강 등을 중시한다는 강호철(1984)의 연구결과와, 여자대학생의 결혼관을 조사한 김혜선(1984)의 연구에서 여자는 성격, 인성, 애정 등을 제일 중요시하고 다음에 장래성, 집안을 중요시한다는 결과와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즉, 여자는 내면적인 것들에 중점을 두기

표 4. 남녀의 교제기간의 차이

성별	N	평균	t
남	161	29.27	2.00*
녀	169	35.26	

* $p < 0.1$

표 5. 남녀의 결혼의식시기의 차이

성별	N	평균	t
남	170	9.98	2.21*
녀	178	13.87	

* $p < .01$

때문에 상대방을 파악하고 판단하기에 시간이 걸리며, 따라서 결혼에 부여하는 의미나 기대가 남자보다 더 크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또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있어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은 교제기간을 가진다는 것은 여자들이 남자보다 좁은 범위 내에서 상대를 선택하는 데 반해 남자들은 선택대상의 폭이 훨씬 더 넓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도 볼 수 있겠다.

결혼을 의식하는 시기에 있어서도 남녀가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는데, 각각의 평균치를 구하여 t-test한 결과, 남자는 첫만남 이후 약 10개월 후, 여자는 첫만남 이후 평균 14개월 후에 교제대상과 결혼을 하고싶다고 의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이로 미루어볼 때, 여자가 남자보다 사귀고 있는 상대방과의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함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다.

3. 만남의 유형에 따른 교제량과 교제진행과정

1) 만남의 유형에 따른 교제량

만남의 유형에 따라 교제빈도와 교제기간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먼저, 교제빈도에 있어서 의도적인 만남의 경우 평균 14번, 우연한 만남인 경우에는 평균 17번으로 나타나 결혼을 전제로 한 의도적인 만남의 경우보다 자연스럽게 만나서 교제한 경우에 만나는 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6).

다음으로 만남의 유형에 따른 교제기간의 차이를 보면, 의도적인 만남인 경우 교제기간이 26.17개월, 우연한 만남인 경우에는 36.10개월로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고 같은 직장이나 학교, 취미나 여가활동 등을 통해 알게 되어 우연히 교제한 경우가 훨씬 더 긴 교제기간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이는 의도적 만남의 경우는 어떤 의미에서는 첫 만남의 시기가 결혼을 의식하고 만나는 시기로 볼 수 있어 교제기간이라는 것이 결혼을 의식하고부터의 교제기간이지만, 우연한 만남의 경우는 결혼을 의식하기 전의 교제단계와 결혼을 의식한 후의 교제기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2) 만남의 유형에 따른 교제진행과정

만남의 유형에 따른 교제진행과정은 첫 만남의 시기에 있어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표 8), 결혼의 식시기, 결혼결정시기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

표 6. 만남의 유형에 따른 교제빈도

만남의 유형	N	평균	t
의도적 만남	169	13.86	8.13**
우연한 만남	164	16.49	

**p<.01

표 7. 만남의 유형에 따른 교제기간

만남의 유형	N	평균	t
의도적 만남	160	26.17	13.01***
우연한 만남	156	36.10	

***p<0.001

표 8. 만남의 유형에 따른 첫만남 시기

만남의 유형 / 시기	18-22세	23-26세	27-30세	31세 이상
의도적 만남	25.60%	39.29%	29.76%	5.36%
우연한 만남	38.41%	42.07%	18.90%	0.61%

$\chi^2 = 14.65^{**}$ (p<.01)

표 9. 교제진행과정의 여과망

(단위 : %)

교제진행과정 변인	첫만남 시기			결혼의식시기				결혼결정시기			
	근접성	매력	기타	매력	의견일치	상호보완	기타	매력	의견일치	상호보완	기타
	33.5	30.9	35.6	40.0	29.0	19.4	11.6	21.9	32.6	26.1	19.4
남	32.7	31.5	35.8	40.8	27.6	18.4	13.2	27.9	25.7	27.0	21.1
녀	34.3	30.3	35.4	39.2	30.4	20.3	10.1	17.1	38.6	26.6	17.7
우연한 만남	45.9	20.1	33.3	39.7	28.8	19.2	12.3	26.0	28.1	27.4	18.5
의도적 만남	21.3	40.2	38.4	41.0	29.5	18.6	10.9	18.0	37.2	25.0	19.9

***p<.001

타내지 않았다.

만남의 유형에 따른 첫만남시기 차이를 보면, 우연한 만남일 경우 의도적 만남보다 첫만남의 시기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는 18~22세에 첫 만남을 가진 비율이 우연한 만남의 경우 38.4%인데 반해 의도적인 만남의 경우가, 25.6%로 나타났고, 또 첫만남이 27세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가 우연한 만남과 의도적인 만남, 각각 19.5%, 35.1%로 나타난 데서 알 수 있다. 이러한 두 유형간의 차이는 만남의 유형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의도적인 만남의 경우 상대방을 처음부터 결혼가능대 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근접한 환경 내에서 만나는 것이므로 첫만남이 빠른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의도적 만남의 경우에 결혼 적령기 혹은 그 이후로 볼 수 있는 27세 이후에 첫만남을 가지는 비율이 우연한 만남의 경우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다.

4. 교제진행과정의 여과망

교제진행과정을 첫만남의 시기, 결혼의식시기, 결혼결정시기의 세 단계로 나누어보았을 때 각각의 단계를 지속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본 결과(표 9), 먼저 첫 만남의 시기에서는 근접성 여과망과 매력 여과망이 각각 33.5%, 30.9%의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나머지 4개의 여과망을 합친 기타가 35.6%를 차지하여 상대방을 처음 만나도록 이끈 요인이 된 것은 근접성과 매력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 첫만남 후 결혼을 의식하는 시기에 가서는 첫단계와 마찬가지로 매력의 여과망이 40.0%로 관계의 지속뿐만 아니라 결혼의 고려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근접성 여과망은 이미 첫만남의 단계에서 만남이 존재하게 했던 주요인으로 작용하였으므로 상대방과의 결혼을 고려해보는 단계에서는 더 이상 의미있는 여과망이 되지 못하였다. 반면, 첫만남의 단계에서는 의미있게 나타나지 않았던 상호보완과 의견일치가 각각 29.0%, 19.4%로 이 단계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이미 교제가 결혼을 염두에 두는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는 중이므로 상대방과의 의견일치나 상호보완성 등 내면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을 함께 고려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결혼결정단계에서는 의견일치 여과망이 32.6%, 상호보완 여과망이 26.1%, 매력의 여과망이 21.9%, 기타의 여과망이 19.4%로 각각 나타났다. 즉,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는 무엇보다도 상대방과 나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상대방과의 결혼을 결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한편, 남녀 성별에 따라 교제진행과정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만남이 처음 이루어지는 시기나 결혼을 의식하는 시기에서는 각 여과망이 비슷한 비율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결혼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남녀 두드러진 차이를 볼 수 있는데, 먼저 남자의 경우 매력의 여과망이 27.9%, 의견일치 여과망이 25.7%, 상호보완 여과망이 27.0%, 그리고 나머지 기타의 여과망이 21.1%를 차지하여 각각의 여과망이 비슷한 정도로 결혼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자의 경우 결혼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의견일치 여과망, 상호보완 여과망, 기타, 매력 여과망이 각각 38.6%, 26.6%, 17.7%, 17.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남자의 경우와는 아주 판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여자는 상호의견의 일치 등 심리적이고 내면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반면 남자는 심리적, 내면적인 것 뿐만 아니라 매력도 여전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결혼에 있어서 보다 현실적인 성향을 띠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 상대방을 어떻게 만났느냐 하는 만남의 유형에

따라 교제과정이 진행되어 가는 데 있어서의 여과망이 다르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첫만남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우연한 만남의 경우에는 근접성 여과망이 45.9%로 절반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을 유지하였고, 반면 의도적인 만남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매력이 41.0%를 차지하였다. 이는 우연한 만남의 경우, 용어 자체가 정의하고 있듯이,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직장이나 학교, 취미활동 등을 통해 만났기 때문에 근접성이 가장 많이 작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나 체격 등의 매력 여과망은 우연한 만남의 첫만남 시기에서는 만남을 좌우하는 데 별로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의도적인 만남의 경우에는 제 3자의 소개나 개입이 전제되며 이들에 의해 이미 사회경제적 배경 여과망 요인은 어느 정도 여과된 상태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무엇보다도 상대방이 가진 외모나 건강, 나이 등의 외형적인 매력이 첫만남을 결정짓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다음 결혼을 의식하는 시기에서는 우연한 만남이나 의도적 만남 모두 매력 여과망이 비슷한 결정력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우연한 만남의 경우에는 우선 근접성이라는 요인이 먼저 충족되었기 때문에 근접성 이외의 요인, 즉 상대방의 매력과 같은 것이 결혼의식시기에서 중요한 여과망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도적 만남에서는 매력 여과망은 그 이전의 단계와 별 차이가 없었다. 한편, 두 유형 모두 첫만남의 시기에서 두드러지지 않았던 의견일치나 상호보완의 의미있는 여과망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수 있다. 이는 나와 평생을 같이 살 동반자로서 상대방을 인식함으로써 같이 살아나가기에 여러가지 가치관이 유사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줄 수 있을 것인가가 상대방을 결혼 적격자로 판단하는 의미있는 기준으로 생각되었음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결혼을 결정하는 시기에서는 만남의 유형 두 가지 모두에서 앞서 두드러졌던 매력 여과망이 현격하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다른 여과망을 살펴보면, 우연한 만남의 경우 상호보완이 그 이전 단계에 비해 증가 비율이 높고, 의도적인

만남의 경우 의견일치와 상호보완의 여과망이 모두 비율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우연한 만남의 경우는 한 사람을 결혼상대자로서가 아니라 한 이성으로서 자연스럽게 사귀다가 결혼을 결정하기에 이르렀으므로 그 단계까지 교제의 지속이라는 것은 이미 의견일치를 전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의도적인 만남의 경우는, 이 단계가 결혼을 전제로 만난 사람과 과연 결혼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기인만큼 앞으로 다가올 결혼이 낭만적인 의미만은 아니라 실제 생활이 된다는 의미에서 상대가 얼마만큼 생각이 비슷한 사람인지 그리고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인지 또 내가 하는 일에 얼마만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등이 동시에 중요한 여과망으로 작용하면서 가장 현실적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더불어 상대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요인, 파악이 용이한 요인부터 고려하고 교제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내면적인 것을 고려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당연한 현상이라 하겠다.

IV. 결론 및 제언

결혼은 인간을 성숙된 인격체로 완성되게 하며 또한 사회구성원을 생산하며 사회화시키는 場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성인남녀는 결혼이전의 기간 동안 두 사람 사이의 충분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배우자선택과정은 결혼생활을 위한 기초적이고 전제적인 훈련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배우자선택의 메카니즘을 살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는데, 여기서의 배우자선택 메카니즘이란 두 사람의 만남의 유형과 교제량, 그리고 첫만남 시기, 결혼의식시기, 결혼결정시기의 세 단계로 나눈 교제진행과정이 지속되게끔 하는 각 단계에 있어서의 여과망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이다.

결혼지속년수가 1년 이상에서 5년 이내인 기혼 남녀 348명을 대상으로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자료분석은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χ^2 검증을 하였다.

이러한 연구절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배우자선택의 일반적인 경향으로 23~26세에 처음으로 만나서 첫만남 후 보편적으로 1년 정도의 기간 이내에 결혼에 대한 생각과 함께 결혼 결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교제량을 나타내는 교제빈도와 교제기간은 연구대상자마다 아주 다양한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성별에 따라 이러한 배우자선택 메카니즘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본 결과, 교제를 시작하는 연령이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제기간에 있어서도 남자와 여자가 차이를 보이는데,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긴 교제기간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만남의 유형에 따라 교제량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의도적인 만남의 경우보다 우연한 만남인 경우 더 많은 교제빈도와 교제기간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 만남의 유형에 따른 첫만남의 시기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우연한 만남의 경우 첫만남의 시기가 의도적인 만남의 경우보다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제진행과정에 있어서 각각의 단계를 지속시키는 여과망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결과, 첫만남의 시기에서는 근접성 여과망이나 매력 여과망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결혼을 의식하고, 결정하는 단계에 가서는 의견일치나 상호보완 등의 내면적인 기준이 중요한 여과망으로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Udry가 제시했던 6개의 여과망이 배우자선택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근접성, 매력, 상호보완, 의견일치의 4가지 여과망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어주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며, 이를 지적하는 것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본 연구는 조사대상을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혼자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배우자선택 메카니즘을 설명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Udry의 이론을 기초로 하였으나, 본 연구의 척도의 표준화를 위해서는 배우자선택의 여러 이론을 종합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알맞는 체계적인 척도개발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교제진행과정을 연구의 편의상 첫만남시기, 결혼의식시기, 결혼결정시기의 세 단계로 나누어보았으나 후속연구에서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배우자선택의 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의 투입과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이제까지의 배우자선택에 연구가 주로 객관적인 조건과 결혼관 등을 조사하였던데 반해, 배우자선택 메카니즘이라는 포괄적인 배우자선택의 과정을 밝힘으로써 우리나라 배우자선택의 고유한 모델을 찾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진다. 또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어떤 요인이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파악함으로써 결혼을 앞두고 있는 미혼의 남녀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우리사회에 바람직하고 건전한 이성교제와 결혼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유용한 이론적 연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참고문헌

- 1) 강호철(1984). 대학생들의 결혼관에 대한 조사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 김경숙(1985). 부모가 자녀의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 논문집 13, 38-57.
- 3) 김미숙(1987). 한국 청소년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 김양희(1989). 가족관계학. 서울 : 수학사.
- 5) 김철자(1977). 인천교대생의 결혼관 조사연구. 인천교대 학생지도연구 5, 77-100.
- 6) 김혜선 · 신양재(1988). 대학생의 결혼관 및 성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 논문집 8, 67-111.
- 7) _____(1991). 배우자선택 연구에 관한 고찰. 한국방송통신대학 논문집 12, 494-513.
- 8) _____(1992). 배우자선택과정과 결혼적응도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9) _____ · 성미애(1993). 배우자선택과정에 관한 사적고찰. *대한가정학회지* 31(2), 69-80.
- 10) 손승녕(1978). 미혼여성의 결혼에 관련된 예기적 사회화 연구. 연세대학교 연세사회학 3, 77-99.
- 11) 유시중(1977). 한국대학생의 결혼관 - 그들의 의식과 실제 -. 효광 최문환 박사추념 논문집 323-345.
- 12) _____ · 한유상(1984). 남녀 대학생의 결혼관(I). 동양문화연구 11, 187-211.
- 13) 유영주(1976). 한국 가족에 있어서의 결혼연구. 인하대학교 인문대학연구소 논문집 2, 127-150.
- 14) _____(1984). 신가족관계학. 서울 : 교문사.
- 15) 윤달원(1978). 한국 여대생들의 성공적인 결혼관 지도를 위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6) 이동원(1981). 도시가족에 관한 연구. 이대논총 39, 197-225.
- 17) 정민자(1987). 배우자 선택결정에 미치는 요인 및 중요도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연구논문집 18, 105-126.
- 18) 조규현(1980). 우리나라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9) 최충일(1976). 한국 청소년의 혼인가치관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 한국가족연구회편(1993). 이혼과 가족문제. 하우 도서출판.
- 21) 한남제(1973). 한국도시 주민의 결혼관. 효성여대 여성문제연구 3, 57-76.
- 22) 홍준숙(1987).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 효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3) Bernard, J.(1973). *Marriage and You*. New Haven : College and University Press.
- 24) Burgess, E. & L. Cottrell(1939). *Predicting Success or Failure in Marriage*. Englewood Cliffs : Prentice-Hall, Inc.
- 25) Coombs, R.(1961). Value Consensus and Partner Satisfaction Among Dating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8, 166-173.
- 26) Goode, W.J.(1982). *The Family*. Englewood Cliffs : Prentice-Hall, Inc.
- 27) Henslin, J.(1980). *Marriage and Family in a Changing Society*. NY : Free Press
- 28) Jorgensen, S.(1986). *Marriage and the Family*. NY : Macmilan Publishing Co.
- 29) Kerkchoff, A. & K. Davis(1962). Value Consensus and Need Complementarity in Mate Selection. *Ame-*

- rican Sociological Review* 27, 295-303.
- 30) Lewis, R.(1973). A Longitudinal Test of a Developmental Framework for Premarital Dyadic Form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5, 16-25.
- 31) Melville, K.(1983). Marriage and Family Today. NY: John Wiley & Sons, Inc.
- 32) Murstein, B.(1970). Stimulus-Value-Role: A Theory of Marital Choi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2, 465-481.
- 33) Nofz, M.(1984). Fantasy-Testing-Assessment: A Proposed Model for the Investigation of Mate Selection. *Family Relation* 33, 273-281.
- 34) Udry, R.(1971). The Social Context of Marriage. Philadelphia: Lippincott Co.
- 35) Winch, R.(1958). The Theory of Complementary Needs in Mate Selection: Final Results on the test of the General Hypothe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0, 552-555.
- 36) 高橋惇子(1983). 結婚成立過程について(第1報). 鳥取女子短期大學 研究紀要.
- 37) _____(1984). 結婚成立過程について(第2報). 鳥取女子短期大學 研究紀要.
- 38) 上子武次·原田降司·門野暎子·田中正子·佐藤繁美(1991). 結婚相手の選擇. 行路社.
- 39) 上野加代子·本村 汎. 未刊行. 配偶者選擇に 影響する 諸要因の研究.
- 40) 望月嵩(1972). 配偶者選擇の結婚. 森岡清美 編 社會學 講座 3 家族社會學. 東京:東京大學出版.
- 41) 望月嵩(1977). 配偶者選擇の變遷. 森岡清美 編. 現代の 家族. 東京:有斐閣.
- 42) 森岡清美·望月嵩(1986). 新 家族社會學. 東京:培風館.